

광주도시공사, 홈 첫 승 불발…실책이 승부 갈랐다

부산에 28-33으로 연패 기록

김지현 9골·이민지 8세이브



광주도시공사가 시즌 첫 홈경기에서 승리를 노렸지만, 잊은 실책과 엠프티 운영의 불안이 승부처에서 발목을 잡았다.

도시공사는 지난 24일 광주 빛고을체육관에서 열린 신한

SOL Bank 2025-2026 핸드볼 H리그 여자부 1라운드에서 부산시설공단에 28-33(14-15 14-18)으로 패하며 연패를 기록했다.

전반을 14-15, 1점 차로 마친 도시공사는 후반 초반 연속 실점으로 격차가 벌어지면서 승리를 내줬다.

조반 주도권은 도시공사가 잡았다.

전반 1분 이효진의 선제 득점으로 포문을 열었고, 5분에는 가로채기 이후 합지선의 패스를 이효진이 마무리하며 3-1로 앞서갔다. 6분 연지현의 득점까지 더해 도시공사는 4-2로 달아나며 흠 팬들의 기대를 키웠다.

전진 수비로 스틸을 노리고 윙 찬스를 빼앗기 만드는 장면도 있었지만, 파울 선언과 패스 미스가 겹치며 공격 리듬이 자주 끊겼다.

승부를 가른 키워드는 '실책'과 '엠프티골'이었다. 도시공사는 7명 공격을 통해 리드를 잡으려 했지만 4-4에서 나온 실책으로 엠프티골 역전을 허용했다.

이후 도시공사의 실책이 속공 실점으로 이어지면서 체력이 빠지는 흐름이 반복됐다. 부산은 이혜원의 돌파로 오른쪽 라인을 공략하며 도시공사의 수비를 흔들었다.

그럼에도 광주는 쉽게 무너지지 않았다. 전반 막판 다시 균형을 맞췄다.

김지현의 득점으로 추격의 불씨를 살렸고, 20분 연지현의 피벗 플레이와 김금정의 미들 속공이 맞물리며 10-11까지 따라붙었다.



지난 24일 광주 빛고을체육관에서 열린 신한 SOL Bank 2025-2026 핸드볼 H리그 여자부 1라운드에서 광주도시공사 연지현이 부산시설공단을 상대로 점프슛을 시도하고 있다. <한국핸드볼연맹 제공>

광주는 7명 공격으로 두 명의 피벗을 세우는 변화를 시도했으나 호흡이 매끄럽지 못했고, 작전타임 직후엔 코트 정리가 어수선해 '8명이 들어간' 상황이 발생하면서 공격권 턴오버로 이어지는 장면까지 나왔다.

25분 김지현의 연속 득점으로 14-14로 팽팽하게 맞섰지만, 마지막 실점을 막지 못해 14-15로 전반을 마쳤다.

후반 초반이 아닐 경기의 분수령이었다.

도시공사는 시작과 함께 15-15로 균형을 맞췄지만, 7m 드로 기회를 살리지 못한 뒤 연속 실점을 하면서 15-18까지 3점 차 벌어졌다.

부산은 빠른 전개로 간격을 더 벌렸고, 이혜원의 돌파에 골대가 열리면서 점수는 16-21이 됐다.

또 김지현의 7m 득점과 강주빈의 가로채기 득점으로 23-27로 4골 차까지 추격했지만 승부처에서 패스 미스가 나오며 추격의 고리가 끊겼다. 광주는 벌어진 간격을 끝내 좁히지 못하고 경기는 28-33

으로 마무리됐다.

도시공사는 김지현이 9골, 이효진이 7골을 책임지고 이민지 골키퍼가 8세이브를 기록했지만 팀의 패배를 막지는 못했다.

도시공사의 홈 첫 경기를 지켜본 여명현 광주시 핸드볼협회장은 "전반은 접전이었지만 후반에 2-3 점씩 벌어지는 순간이 아쉬웠다"며 "이번 시즌 새로 합류한 선수들과 신예들이 있어 팀 분위기가 쇄신되길 기대하고 있다. 시즌 초반만 만큼 끝까지 페팅했으면 한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성적도 중요하지만 선수들이 부상 없이 리그를 마무리하길 바란다"며 "핸드볼은 1시간 내내 박진감 있게 몰입해서 볼 수 있는 스포츠다. 더 많은 관객이 찾아와 응원해주시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도시공사는 오는 30일 오후 5시, 광주 빛고을체육관에서 인천시청을 상대로 홈 첫승을 노린다.

/박연수 기자 training@kwangju.co.kr

한국 스노보드, 밀라노서 새 역사 쓰나



최기온

2026 밀라노 동계올림픽 스노보드·스키점프

이상호, 8년만에 메달 획득 도전

최기온, 클로이 김 부상에 금 기대

스노보드는 선수들이 보드를 타고 다양한 형태로 눈 위를 누비는 모습을 볼 수 있는 스포츠다.

제18회인 1998년 나가노 대회부터 동계 올림픽에서 봄 종목으로, 올림픽 초창기부터 열린 알파인 스키나 크로스컨트리 등에 비하면 역사가 오래되지는 않았다.

1960년대 미국에서 태동한 것으로 알려진 종목의 특성상 역대 올림픽 스노보드에선 미국이 금메달 17개·은메달 8개·동메달 10개를 따내 가장 강한 면모를 보였고, 스위스, 캐나다, 오스트리아 등 서방 국가의 강세가 두드러진다.

올림픽에서 스노보드는 스피드를 겨루는 스노보드 알파인과 크로스, 연기를 점수로 평가해 경쟁하는 프리스타일 계열의 하프파이프와 슬로프 스타일, 빅에어로 나뉜다.

스키와 마찬가지로 스노보드에서도 한국은 '변방'을 면치 못했지만, 2018년 평창 대회 때 이상호(네센원가드)가 알파인 종목인 평행대회전에서 은메달을 획득하며 스노보드도 '올림픽 메달 종목' 대열에 들었다.

두 명의 선수가 나란히 코스를 내려오는 형태 때문에 이름에 '평행'이 붙은 평행대회전이 이번 밀라노·코르티나담페초 대회에서도 열려 이상호는 8년 만의 메달 획득을 노린다.

남자부 김상겸(하이원), 조완희(전북스키협회), 여자부 정해림(하이원)도 함께 출전한다.

이번 대회에선 스노보드 기교 종목의 대표 격인 하프파이프도 주목된다.

/연합뉴스

광주·전남 선수단, 장애인동계체전서 메달 사냥 나선다

내일 개막…광주 2개 종목·전남 6개 종목 출전

제23회 전국장애인동계체육대회가 27일부터 30일까지 총 4일간 강원특별자치도 일원에서 열린다.

이번 대회에는 지체·시각·지적(발달)·청각장애 선수들이 참가하며, 알파인스키·스노보드·크로스 컨트리스키·바이애슬론·아이스하키·컬링·빙상(쇼트트랙) 등 총 7개 종목에서 메달 경쟁을 벌인다.

개회식은 27일 오후 4시 강릉아이스아레나, 폐회식은 30일 오후 3시 강릉 신라모노그램에서 진행된다.

광주는 훨체어 컬링과 빙상에 총 20명(선수 6명, 지도자 2명, 보호자 3명, 임원 9명)이 참가한다.

빙상은 성인부 윤재현·한성주가 500m와 1000m에 출전하고, 훨체어 컬링은 2인조에 정혜진·조영철, 4인조에는 정혜진·조영철·김승일·명문호가 나선다.

컬링은 사전대회 일정부터 소화해 20일부터 30일까지 레이스를 이어가고, 빙상(쇼트트랙)은 29~30일 경기가 진행된다.

전남도는 스노보드를 제외한 6개 종목에 선수단을 파견한다.



전남도장애인체육회 소속 김진태(왼쪽)와 이진희가 청각장애 컬링 미스터를 경기장에서 포즈를 취하고 있다. <전남도장애인체육회 제공>

전남은 지난해 9월 실무자회의를 시작으로 강화훈련 계획을 세우고 경기용품 지원을 마쳤으며, 컬링(청각·휠체어)과 하키(골리)에

서 신규 선수 3명을 영입해 전력을 보강했다.

전남은 올해 종합순위 4위를 목표로 설정했다. 훨체어 컬링 4강, 하키 8강 진출을 성적의 분기점으로 잡았고, 남자 크로스컨트리 최재형(농어촌공사)은 3년 연속 금메달에 도전한다.

한편 지난해 대회에서 전남은 남자 크로스컨트리

스키 2관왕 최재형 등의 활약 속에 종합 9위를 기록했다.

광주는 컬링·빙상 2개 종목에 28명(선수 13명·임원·지도자 15명)을 파견해 종합점수 221점으로 17위로 대회를 마무리했다.

/박연수 기자 training@kwangju.co.kr

줄거운
문화
산책



광주예술의전당 전시지원 공모전시
미음완보 : 민은주 개인전

일시 : 2026-01-23(금)~2026-02-22(일)
공연 있는날 10:30 ~ 19:30
공연 없는날 10:00 ~ 18:00
장소 : 광주예술의전당 갤러리
문의 : 062-613-8357

광주예술의전당 개관 35주년 기념
2026 그랜드 오케스트라 워크

2026 그랜드 오케스트라 워크
2026 Grand Orchestra Week
2026-02-03(화)~2026-02-06(금) 19:30
장소 : 광주예술의전당 대극장
문의 : 062-613-8236



광주예술의전당 개관 35주년 기념
2026 그랜드 오케스트라 워크

일시 : 2026-02-03(화)~2026-02-06(금) 19:30
장소 : 광주예술의전당 대극장
문의 : 062-613-8236